# 文淸公燕行日記

## [해제]

이 책『鄭松江燕行日記』는 송강 정철 선생의 사행일기로써 그 동안 송강 선생의 문중에 오랫동안 소장되어 전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문중에서는 최근에 담양에 있는 한국가사문학관에 기증을 하였기에 지금은 가사문학관에 중요 자료로 보관되어 있다. '이 일기는 송강 선생 말년의 행적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송강 선생의 사행 이후 선생께서 관련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세하게 밝혀줄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송강의 사행 이후에 조정에서는 사행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그 결과 송강은 강화도에 물러나 있었으며, 그 후 얼마 안 되어 그곳에서 운명을 하였다. 따라서 그의 생애 마지막을 장식한 사행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가 일어났던 것은 송강에게는 커다란 시련이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의 사행과 관련되어 좀더 많은 자료를 통하여 그의 진실된 모습들을 밝혀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사행일기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앞부분의 낙질이나, 또한 자료의 양이 충분히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송강의 친필 사행일기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는 문헌이다

## [목차]

文淸公燕行日記

## [원문]

文淸公燕行日記

十六日 陰
以車輛未到 留關外毛志才家
十七日 晴
早牌入關 禮于兵部分司主事 主事招通事 問曰 陪臣乎 對曰 渡江以來 報切深悶慮　竊欲稟知的確之寄 而
不敢矣 主事曰 初報來 過七月二十八日 賊子陪臣與沈遊擊 事曰 陪臣在路或云　搶掠全羅 主事
須與留諸行
通事曰 若然則前項馳報 到此
子 答已過數日矣 主事復問曰 當
入寇國王遽出京城 西避義洲
民庶多有怨恨者云 是否令通事 通事對曰
年 賊之長驅也 勢甚浩大 急難抵
王迫不得已 奉廟社之主 西出開城府
要守臨津渡口 未幾不能把截 開城
等地 俱被賊陷 緣此 國王又移 駐于平
壤城 以保大同江事 又不幸 平壤亦
失守 其兇鋒猖獗 莫敢支 吾國王之來
避于義州者 豈初心哉 誠迫於事勢 不得不如是矣 至若國中民庶 則
猝大變 見國王播越 草莽莫不痛
有怨恨之理乎 主事曰 聞倫國蕩
餘物力凋盡 今年田農亦復如何
對曰 小邦遭被兵燹 死亡無遺 僅得
保存者 亦奔走於轉運之役　未遑農
作 祗有全羅忠淸兩道 稍有耕作
其餘則頓無西成之望 方急於餓殍
誠恐不得過活 主事曰 我亦聽得大
同以西 稍有耕作 而開城王京慶尙
等處 俱盡拋荒云 爾國當何以陪臣
前到朝廷 若有問之者 詳
之 朝廷定應有放科之事矣
倭賊乞貢通路 未知可許否 對曰
自來 兇狡不測奸謀
大爲 他日之憂 此等曲折 陪臣
先左右而

悉問故 敢此告陳矣老爺主
事答曰 此事朝廷 方議未決 你至
朝須要明日分說云 一行辭禮而出 西
城留下 于民人陳南山家 向晩主事卽送
下程禮物 閣老與副使 接待來使 贈以數
柄扇子 又令通事 送禮物于主事 主事曰
你國自遭變亂敗甚矣 我比來一切不受
禮物 你可說陪臣 因差部下人 同通事
來到 將原送禮物 照數還納 使相仍命
通事 又以扇把給其來人 其人亦辭不
受 爺尙不受此 某安敢如此 終不取
乃□捧也
十八日 晴
發山海關 閣老及書狀乘車 午飯于車上 夕到榆關 宿民人楊五家
十九日 晴
晩發 午餉范家店 夕到撫寧縣 宿民人石山家
二十日 晴
晩發 午餉望鋪 夕到永平府 南城外儒士朱京晦家
二十一日 晴
晩發 渡大小灤河 午餉安何驛 夕到家嶺裏店人劉九思家
在永平府時 宋經略所差 夜
善者 以取地圖事 持牌文
到就與問 及東邊消息 賊
初圍住晋州 劉副摠領 兵殺
你國兵馬 協力殺堵賊 遂敗走 終不
能陷城 因賊 盡渡海
巢 王耶陪臣 亦已送回 且關白
以馬匹及銀兩 給與徐謝兩使來還
矣 方其征戰晋陽之賊也 劉將兵馬
死者幾二三千 而本國軍亡者
亦三四千 而將領貴官 則幷無
死亡者矣 全羅道 賊不
曾侵犯矣 宋爺將 以
今月十四日起身 西到
義州 仍爲駐留 待得國
王回到王京 事完後 方
始渡江矣 且留北兵一萬
及南兵一萬 幷二萬兵馬

分屯于釜山善山等處 以防後患云矣
云云
二十二日 晴
以方物車輛未到 留九思家
二十三日 晴
晩發 午餉初店鋪 夕宿榛子店
民人家 是朝在七家(鎭) 時有
二箇人 自東馳來 自稱劉 李提督
部下 人說稱今月(初)
馬 初六七日 王子陪臣 已到京城 就
問晋州之事 則答曰 賊當初攻圍
晋州時 劉副總領兵進剿 與你
國兵馬 協同厮戰 劉將斬獲賊
首三十六顆 緣此 賊不得攻陷
因(爲)退走 遂與留下釜
山等處 諸賊俱各上船 往對
馬島云 訖今則劉副將領兵一
萬 屯住于釜山等處 以防慶
尙道海面 李如栢領兵一萬
派守全羅道嘴口 防備警急 其
餘大軍 俱聽宋爺分付 不多
日內 漸次西(還)矣
二十四日 雨
晩發出通州西城 過大通橋 午
餉石仮山家 使相書狀 冠帶于東岳廟門
內 令通事送禮于朝陽門大監 由朝
陽門 入過大市街廣仁街長安街 自玉河
東堤 過玉河橋 到館安下
是夕聖節使一行來會
初四日 晴
留玉河館　是朝車輛畢到 序班高雲程來見 聖節使來會
初五日 晴
留玉河館 令李民省 呈報單于鴻臚寺 以月忌不得報呈
初六日 晴
留玉河館　令李民省 呈報單(鴻臚)
寺
初七日 晴
早晨 進東長安門外 待漏而入行

朝禮午門外 欽喫酒飯于闕左
復行禮而退 伺候于禮部 尙書
左右侍郎坐堂 卽行見堂禮呈咨
文及兌宴呈文 訖退候于(外) 又
禮見于主客司 而 司則免見 遂歸館
適有提督主事 館　令通事稟行禮
亦令免見 是夕聖節使書狀來會 設小酌而罷
初八日 晴
留玉河館　驗方物于禮部下程來
初九日 晴
留玉河館
初十日 晴
進兵部 尙書及左右侍
郎 出接于後堂中 陪臣行禮訖
卽投呈文 石爺招通事具男問曰
你們此行專爲謝恩而來乎
所謂謝恩何事 且你們起程時
倭子尙在釜山乎 兩使令具男答曰
職等差來 乃是謝三京收復之恩也
來時賊方在釜山鎭 職 於五月
起身 故厥後軍前消息 聞 在路
聽得或云倭賊回巢 或云 在海
未能的知何樣 及到館裏 聽知
賊(渡)海去 訖然亦未審的
(然與否矣) 五月起程何
未耶 (答曰)
殘弊比甚 軍馬不敷 職等未(到)
適有聖節陪臣 奉表趕到 前期(發)
臨迫 故不得已 以取調軍馬 先付
聖節使之行 待彼軍馬回還 方始起程
以致延 累日 且緣遼陽以西路多阻水
行走不便所以 在途遲誤者此也
尙書曰 若然則八九月以來倭報
你等必不能知 我今說與你
知會近接海上將官印信公文塘報
說稱賊 賊悉浮海 只有平行長一陣
留在西生浦云 西生浦原係朝鮮疆土
乎 抑屬日本乎 答曰 西生浦在

東萊府 迤東蔚山郡地 東萊府
有左道水營 乃水軍節度使下營處
西生浦距釜山 旱路一日程
水路一篷可到 左右前後 有許
多鎭堡 原是本國疆土 豈有干
係賊土之理乎 且西生浦之前 有
小島 只隔帶一水 皆是小邦土地 尙書曰 你
行若係謝恩 則齎備禮物而來乎 答曰 前者因
收復平壤 差陪臣韓準謝恩 今以收復三京之意
差職等艱備禮物以來矣 尙書曰 謝恩表文見
今到此否 答曰 表文則已進于禮部 草稿則留
下館裏 不曾帶來矣 尙書曰 你行只爲收復三
京而已 別無他事否 答曰 專爲收復三京而來耳
尙書曰 皇上憐愍你國效其忠順 特(動)天下之
兵 蕩伐兇賊 此後你國 說或有變決 不再動兵馬
今者留兵幾許 你國作何方略 可以倂力
截以保無憂耶 今欲留五千兵 與爾國兵三萬
協同防守 三萬軍兵 可以調發乎 (答曰) 小邦
垂亡之餘 得有今日秋毫 皆 帝力也
不敢更有辭說 今若只留
則恐難勾守 小邦人民丁壯
老弱 殫竭一國之力調發 則未知
三萬之數否也 尙書曰 然則留一萬兵馬
足乎 答曰 若以賊盡歸巢言之 則一萬兵
猶可足也 倭奴變詐叵測 萬一再來 則以
萬恐難抵當 此小邦莫大之憂也 尙書又
問曰 東海君云者 國王第幾子乎 答曰
王子中本無東海君 無乃臨海君乎 是長子
尙書曰 著他管軍馬 與天將協守
未知人心歸屬乎否 答曰 不然
臨海君卽賊中被擄者 未知出還與否矣
尙書曰 臨海君果是搶過來的
是世子名某者乎 答曰 世子卽光海君
國王第二子 國王擇諸子中最賢 立爲世子
國王越在草莽 庶事蒼黃 未及奏聞矣
石爺卽令下吏 査考文書 吏回報曰 果
多銀少云 其鉛可造鉛丸乎 此等事宜你
陪臣 可以知之 汝其問來 卽令具男回稟曰

賊之未退時 諸賊散布各處 故所在地方
隨處斬獲零賊 今則賊雖出境 各路軍兵
除操 備本處外 那移調用 以此厥數不多
全羅道地方則凡五十餘官矣 海上龜舡多
少 慶尙左道經變以來 物力蕩竭無餘 唯
有慶尙右道及全羅左右道 稍有船隻 水軍
節度使李舜臣等 修造把用 但一船篷 矸手
及打夫 例勾八十餘名 而戰士則不在此數
本國之人 常患水病 不習駕海 故凡操舡
役&nbs;必用漁戶民丁 以此兵船之具 雖未大治 而
近亦隨力整完矣 權慄曾以全羅道觀(察)
領兵數萬來 在幸州克捷(倭)
道 都元帥之任目 今取部
駐箚之處 不能的知矣 至若鐵物 則元
本國足可勾用 鉛亦可造鉛丸矣 尙書曰 鐵
若優 則打造軍器 可以無憂 因指點上書
國君旣無失德云 無忠臣何害焉 乃曰
你國多竹 可造狼 否 對曰 竹則固兩南所産
取用無匱矣 仍令具男跪告曰 小邦賊退
在於播種之後 故民不作農 千里抛荒
雖賊兵未到處 遠近民庶 奔走調發
不暇穡事 些少穀物 粒粒收取 以資天
兵之餉 若捱過秋冬 以至明年 則(接)無策
若於明年春夏 稍以付種 以待秋成 則繼餉之資
庶得支繼 所患者 明年春夏之間耳
但農器農牛及種子 一皆掃如此
小邦所以爲悶者也 尙書曰 今若通開市之利
平壤開城王京等處 均輸貿遷
則遼東(物 收富)
且今年穀甚豊穰 爾國 若通
則明年春夏 (所以支) 且天兵遠(域) 思欲豊其衣
而美其食 苟不好其衣食以待之 彼將搔擾
當今之事 莫如通市之爲急也 若種子則遼東地方
本無稻子 況種子 穀物難以調給 不須費講也
且問曰 你國用錢乎 對曰 本無錢泉矣
曰用布乎 對曰 有之 但爲倭奴搶去 故布亦
絶少矣 尙書曰 若然則亦可以雜件物貨
隨力貿市爲便 且曰軍器則以鐵物可以造完

弓箭亦可足用乎 對曰 自遭變以來 一應軍
資弓矢等物 皆搶失無餘 上年蒙老爺大恩
許貿弓面角子 故稍得措辦 今則殆盡 今將
弓角牛筋等物 欲爲貿去 而 價矣 且今者
所留天兵 多少幾何 介楪器械 必令小邦傳習精
永被皇恩 終保疆域 望老爺分付 尙書
曰 禦敵之具 已爲行文分付 今擬留一
萬六千軍馬 你國可以支餉耶 且你國
多有焰焇乎 對曰 天兵餽餉之費 若銀錢
則誠恐難支 至於糧餉 則敢不竭小邦之力
以圖之耶 焰焇雖有之 而素無善工
不能容易煮造 故用不 贍 而亦不精好矣
尙書曰 凡此戰守機 宜吾已分付于劉綎
劉綎是好將官部下 多帶幹事將領
今後禦敵之事 一依劉將指揮 而行之
伐木山上 以治水戰之具 多設伏弩
以截要路 山蹊險阻之處 添造木柵
以成形勢 水陸之備修 擧戰守之械
完繕 則彼倭奴 安能飛來哉 此外有
劉綎小將來候 你等可與之商議事機
從此你國亦宜自强 吾今得留兵等事
用心區處 上本矣 你可說與陪
十四日 晴
留玉河館
十五日 晴
留玉河館
十六日 晴
留玉河館 下程來 聞免宴題 本奉( 旨是 )
十七日 晴
留玉河館 提督洪啓 下館 納方物(貢馬)
十八日 晴
留玉河館
十九日 晴
留玉河館
二十日 晴
留玉河館
二十一日 晴
留玉河館 下程來

二十二日 晴
留玉河館　提督主事下館　召通事具男 請曰　你國王誥命冕服(被) 則爲賊所搶云 此乃皇朝應行補給 (璣以陪臣) 明日(呈)堂 可也 下程來
二十三日 晴
留玉河館　令李氏呈欽賜謝恩報單鴻臚寺 兩使相及書狀 進往禮(部益　誥)命事呈文故也 以不坐堂 不得呈
二十四日 晴
留玉河館　謝恩(後路) 往禮部
査員外不來 不得呈
二十五日 晴
是日始呈文禮部
二十六日
留玉河館
二十七日 晴
下程來 免宴銀來 留玉河館
二十八日 晴
留玉河館　謝恩
二十九日 晴
謝恩
十月初一日 晴
參朝儀 受初曆 留玉河館
初二日 晴
留玉河館
初三日 晴
留玉河館　兵部尙書招具男(去)
初四日 晴
留館　一行往兵部 回話于尙書 前擬往禮部呈軍資等事 石爺聞之 令取禮部呈文來 看訖 謂具男曰 此呈文內事 正我所深慮者也 當鄭崑壽之領銀也 關給多少銀子 對曰 三千兩矣 答曰 此不打緊事也 我當周旋處之
初五日 晴
留玉河館
初六日 晴
留玉河館
初七日 晴
留玉河館
初八日 晴
留玉河館
初九日 晴
是日領賞

初十日 晴
是日謝恩
十一日 晴
留玉河館　以禮部作兵部移咨 內請降勅本
國題本事 請差行人齎勅 以往
已於初十日 上本云 是夕洪提督下
館　使書狀請見 仍以誥命
(等　勅 )之意 再三懇告 提督 講于羅爺 且令陪臣 呈請于兵部尙書 詳在別錄
十二日 晴
以提督分付 呈文于兵部 詳在別錄
十三日 晴
留玉河館　令具男往兵部 聽候石爺分付
方言學無(營)是曰 篤誰謝 又誰曹 澤靑 穿綠 袍 一生營
此卽松江鄭文淸公 萬曆癸巳赴
京時日記也 嗚呼 壬辰之變 尙忍言哉
今去先生之世 二百有餘歲矣 雖尋常
書牘 爲其後承者 愈遠而猶貴　況於患
難之中 記事歷歷 而且先生
之沒 在於是冬 則便同絶筆也 間爲印人之所擠
去 而不善修護 致有傷汚之處 可
勝歎哉 余嘗讀晦翁書 至劉子澄
墨莊記甚奇其失而還補今此帖
亦然矣遂粧繢而歸之
黃龍仲春下浣書

## [현대역]

문천공연행일기

16일 흐림.

거량(車輛:수레)이 도착하지 않아서, 관외(關外)f1h의 모지재(毛志才) 집에서 유숙했다.

17일 맑음.

조패(早牌)f2h가 관(關)으로 들어가 병부분사주사(兵部分司主事)f3h에게 예를 올렸다.....

주사가 통사(通事)f4h를 불러서 물었다.

"배신(陪臣)f5h은.....인가?" 대답하기를 "강을 건너온 이래.....보고 드려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하여 올리고자 하였으나.....

적확(的確)하게 부쳐야 할 것을 알고 감히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주사가 물었다. ".....초보(初報)가 온 이래, 7월 28일이 지나자,

적(賊)은.....배신(陪臣)과 沈遊擊(심유격)f6h은....."

통사가 대답하였다. "배신은 길에서.....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전라도(全羅道)를 창략(搶掠)하였다'고 합니다....."

주사가 물었다. ".....반드시.....함께 유숙하고.....여러 행차....."

통사가 대답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앞서서 반드시 馳報(치보)가 여기에 도착하여.....

답(答)이 이미 수일이 지났을 것입니다." 주사가 다시 물었다.

"왜구가 들어왔을 때....., 국왕이 급히 경성(京城)을 빠져 나와서

서쪽 의주(義州)로 피난하니....민서(民庶:백성)들이 몹시 원한(怨恨)을 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통사가 대답하였다. ".....년 적이 오랫동안 날뛴 것은 형세가 몹시 호대(浩大)하고,

급난(急難)이 .....에 이르러서, 왕께선 다급하여 어쩔 수없이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서쪽 개성부(開城府)로 나와서 임진(臨津) 나루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막아낼 수 없어서, 개성(開城) 등지가 모두 적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왕께서는 또 평양성(平壤城)으로 옮겨 머무르며 대동강(大洞江)의 사태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다시 불행하게 평양 역시 지키지 못하여, 그 흉악한 창날의 창궐을 감히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왕께서 의주로 피난 온 것이 어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참으로 사세가 급박하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라 안의 민서들은 창졸간에 큰 변란을 당하여,

국왕께서 파월(播越)f7h하여 홀로 달아나심을 보고 통분해 하지 않음이 없었는데.....어찌 원한을 품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주사가 물었다. "왜구들이 분탕질하여 .....남은 물력(物力)도 고갈되었다고 들었는데,

금년의 전농(田農)은 또한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전쟁의 재앙을 당하여,

모두 사망하고 남은 자가 없는데, 겨우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도 전운(轉運)의

역(役)에서 분주하여 농사를 지을 겨를이 없습니다. 다만 전라도와 충청도 양도(兩道)만 약간 경작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전혀 수확할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굶어 죽을 것이 다급하니, 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이 두렵습니다." 주사가 말하였다.

"나도 또한 대동강 서쪽만 약간 경작을 하고, 개성(開城), 왕경(王京), 경상도(慶尙道)

등의 곳은 모두 황폐해졌다고 들었다.
너의 나라는 마땅히 어떻게.....? 배신은 앞서서 조정에 도착하였으니,
들은 것이 있다면 상세하게 말하라.
조정에서는 진정 마땅히 방료지사(放料之事)f8h가 있었을 것이다.....
왜적이 통로(通路)를 요구하였다는데 허가하였는지 모르겠다.....
(대답하기를?) .....이래, 흉교(兇狡)함을 헤아릴 수 없고,
간모(奸謀) 또한.....몹시 타일의 우환이 될까...이러한 곡절을 배신은.....
.....좌우에 앞서.....감히....하지 못하고.....상세하게 물으시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야(老爺)께서는.....?" 주사가 답하였다. "이 일은 조정에서 바야흐로 의론하였으나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너희가 왔다.
조정에서는 반드시 명일 분부할 것이라 한다." 일행은 사례하고 .....서성(西城)을 나와서 민인(民人) 진남산(陳南山)의 집에 유숙하였다.
저녁 때 주사가 곧 하정예물(下程禮物)f9h을 보내왔다.
각로(閣老)와 부사(副使)가 내사(來使)를 접대하여 여러 자루의 부채를 주고, 또 통사(通事)를 시켜서 주사에게 예물을 보냈다.
주사가 말했다. "너의 나라는 변란을 당한 이후로 피패가 심하다.
나는 근래에 일체 예물을 받지 않으니, 너는 배신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차부하인(差部下人)f10h이 통사와 함께 와서 원래 보냈던 예물의 숫자를 대조하여 환납(還納)하였다.
사상(使相)이 곧 통사에게 명하여 또한 부채를 그 함께 온 사람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 사람 역시 사양하고 받지 않고, "노야(老爺)께서 오히려 받지 않으신데
제가 어찌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하고는 끝내 감히 취하지 않았는데,....
....이에 받들었다.
18일 맑음.
산해관(山海關)을 출발했다. 각로(閣老)와 서장관(書狀官)은 수레를 탔다.
수레 위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유관(榆關)에 도착하였다. 민인 양오(楊五)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19일 맑음.
늦게 출발하여 범가점(范家店)에서 점심을 하고, 저녁에 무녕현(撫寧縣)에 도착했다. 민인 석산(石山)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20일 맑음.
늦게 출발하여 ..망포(..望舖)에서 점심을 하고, 저녁에 영평부(永平府)에 도착하였다. 남성(南城) 밖 유사(儒士) 주경회(朱京晦)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21일 맑음.
늦게 출발하여 크고 작은 난하(灤河)f11h를 건너서 안하역(安何驛)에서 점심을 하고, 저녁에 ..가령(..家嶺)에 도착했다.
.....점인(店人) 유구사(劉九思)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영영평부(永平府)에 있었을 때, 송경략(宋經略)f12h의 소차(所差)에서 밤에.....자가

지도(地圖)를 취한 일로써 패문(牌文)을 지니고 와서, 나가서 더불어 물어보았는데, 동변(東邊) 소식도 물었다.....
적이 처음 진주(晋州)를 포위하고 주둔하고 있을 때, 유부총(劉副摠)f13h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죽일 때, 너의 나라 병마(兵馬)가 협력하여 죽이니,
적은 마침내 패주하여 끝내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적은 모두 바다를 건너 소굴로 돌아갔다.....왕야(王爺) 배신(陪臣) 역시 이미 되돌려 보내왔고,
또한 관백(關白)도 마필(馬匹)과 은량(銀兩)으로 서(徐), 사(謝) 양사(兩使)에게 급여한 것을 내환(來還)하였다....
바야흐로 진양(晋陽)의 적과 정전(征戰)할 때, 유장(劉將)의 병마(兵馬) 가운데 죽은 자는 거의 이삼 천이고,
본국의 군사 가운데 죽은 사람은
또한 삼사 천인데 그러나 장령(將領)과 귀관(貴官)은 모두 죽은 자가 없습니다. 전라도는 적이 일찍이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송야장(宋爺將)은 금월 14일 몸을 일으켜 서쪽으로 의주(義州)에 도착하여,
곧 머물러 주둔하며 국왕이 왕경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일이 완수된 후 비로소 강을 건너왔습니다.
또 북병(北兵) 1만, 남병(南兵) 1만, 모두 2만을 남기어서, 부산(釜山), 선산(善山) 등지에 나누어 주둔시켜 후환을 방비하였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22일 맑음.
방물거량(方物車輛)이 도착하지 않아서 구사(九思)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23일 맑음.
늦게 출발하여 첫 점포(店舖)에서 점심을 하고, 저녁에 진자점(榛子店) 민인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이날 아침 칠가진(七家鎭)에 있을 때, 어떤 이개(二箇)...인(人)이
동쪽에서 달려와서 자칭 유.....(劉....)으로서 이제독(李提督)의 부하라고 말하며, 금월 .....
.....초육칠일에 왕자(王子)와 배신(陪臣)이 이미 경성(京城)에 도착하였고.....
진주(晋州)의 사태를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적이 당초 진주를 공격하여 포위하였을 때,
유부총(劉副總)이 병사를 거느리고 진초(進剿)하여, 너의 병사와 함께 협동하여 싸웠는데,
유장(劉將)은 적의 머리 36과(顆)를 참획(斬獲)하여,
이로 인하여 적은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하고 물러나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산 등지에 머물러 있던 여러 적들과 함께 배를 타고 대마도로 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부장(劉副將)은 병사 1만을 거느리고 부산 등지에 주둔하며 경상도 바다를 방비하고 있습니다.
이여백(李如栢)f14h은 병사 1만을 거느리고 전라도 취구(嘴口)를 지키면서 급한 사태를 방비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대군(大軍)은 모두 송야(宋爺)의 분부를 듣고 며칠 내로 점차 서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24일 비가 오다.

통주서성(通州西城)에서 늦게 출발하여 대통교(大通橋)를 지나 석가산가(石假山家)에서 점심을 하였다.
사상(使相)과 서장관은 동악묘(東岳廟) 문 안에서 의관을 차리고,
통사(通事)를 시켜 조양문(朝陽門) 대감(大監)에게 예물을 보내도록 하였다.
조양문을 거쳐서 대시가(大市街), 광인가(廣仁街), 장안가(長安街)로 들어갔다.
옥하(玉河) 동제(東堤)에서 옥하교(玉河橋)를 거쳐 관안하(館安下)에 도착했다.
이날 저녁 성절사(聖節使)f17h 일행이 와서 모였다.
초 4일 맑음.
옥하관(玉河館)f18h에서 머물다. 이날 아침 거량이 모두 도착하였다.
서반(序班)f19h 고운정(高雲程)이 와서 보았다.
성절사(聖節使)가 와서 모였다.
초 5일 맑음.
옥하관에서 머물다.
이민성(李民省)에게 홍려시(鴻臚寺)f20h에 보단(報單)을 올리도록 하였지만, 월기(月忌) 때문에 보정(報呈)할 수 없었다.
초 6일 맑음.
옥하관에서 머물다. 이민성이 홍려시에 보단을 올렸다.
초 7일 맑음.
이른 새벽에 동장안문(東長安門) 밖으로 가서 시각을 기다려.....
오문(午門) 밖에서 조례(早禮)하고, 궐좌...(闕左...)에서 술과 밥을 들고,
다시 예를 행하고 물러 나왔다.
예부(禮部)에서 기다리는데, 상서(尙書)의 좌우시랑(左右侍郞)이 당(堂)에 앉자마자
곧 당례(堂禮)에 올릴 자문(咨文)과 태연(兌宴) 정문(呈文)을 살펴보았다.
일을 마치고 물러나 외....(外....)에서 기다렸다.
다시 주객사(主客司)에서 예견(禮見)하고, 그리고 .....사(司)의 경우는 상견을 면하였다.
마침내 관(館)으로 돌아왔다.
마침 제독(提督)의 주사(主事)가 관에 있어서, 통사를 시켜 예를 올리도록 하였으나 또한 상견하는 것을 면하도록 하였다.
이날 저녁 성절사와 서장관이 와서 모였다.
작은 술자리를 벌리고서 파하였다.
초 8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렀다. 예부에서 내려보낸 방물(方物)을 점검하였다.
초 9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렀다.
초 10일 맑음.
병부에 나아가니, 후당(後堂) 안에서 상서와 좌우시랑이 곧 나와서 접대하였다.
행례(行禮)를 마치고 곧 정문(呈文)을 올렸다.
석야(石爺)가 통사 구남(具男)을 불러서 물었다.

“너희의 이 행차는 오로지 사은(謝恩) 때문에 온 것인가? 소위 사은이란 것은 무슨 일이던가?
또 너희가 떠나올 때 왜놈들은 아직도 부산에 있었던가?“ 양사(兩使)가 구남에게 답변하도록 하였다.
“우리들이 사신으로 온 것은 곧 삼경(三京)을 수복한 은혜에 사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떠나올 때 적은 바야흐로 부산진(釜山鎭)에 있었는데,....우리는....5월에 떠나왔기 때문에 그 후의 군사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는 길에 들은 바로는 어떤 이는 왜적이 소굴로 돌아갔다고 하고,
어떤 이는 바다에 있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관에 도착하고서 적이 바다를 건너갔다고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5월에 떠나왔으니, 어떻게.....(답왈).....피해가 이처럼 심하여, 군마(軍馬)를 동원할 수 없었고,
저희들은 .....때마침 성절배신(聖節陪臣)이 표(表)를 받들고 도착하여,
앞 기일의 출발이 임박하여 어쩔 수 없이 군마(軍馬)를 취조(取調)하여 성절사신의 행차를 우선 부탁하고,
저 군마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서, 바야흐로 길을 떠나 여러 날을 달려왔는데,
또한 요양(遼陽)의 서쪽 길은 가로막는 물이 많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여,
늦어지고 잘못 된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 상서가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팔구 월 이래 왜적의 소식에 대해 너희는 반드시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와 말한 것은 마침 해상(海上)에 가까이 있는 장군(將軍) 인신당(印信塘)의 공문(公文)에서 적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다.
적은 모두 바다를 건너갔다고 하는데, 다만 평행장(平行長)의 일진(一陣)만이 서생포(西生浦)f21h에 머물러 두었다고 한다.
서생포는 원래 조선의 강토이던가? 아니면 일본에 속한 것인가?“ 답변하기를 “서생포는 동래부(東萊府)에 있는데,동쪽으로는 울산군(蔚山郡) 땅과 이어졌습니다.
동래부에는 좌도수영(左道水營)이 있는데, 곧 수군절도사의 하영(下營)이 있는 곳입니다.
서생포는 부산과의 거리가 한로(旱路:육로)로는 하루 노정이고, 수로(水路)로는 한 뱃길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좌우와 전후에 많은 진보(鎭堡)가 있는데, 원래 본국의 강토로서 어찌 적토(賊土)에 속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서생포의 앞에는
작은 섬이 있는데, 다만 한 물길을 두르고 있으니. 모두가 우리 나라의 토지입니다.
“ 상서가 물었다. “너희 행차가 사은에 관계된다면 예물을 갖추어 왔는가?“ 답변하기를 “이전 번에 평양(平壤)을 수복한 일로 배신(陪臣) 한준(韓準)을 보내 사은하였는데,
지금은 삼경(三京)을 수복한 뜻이 온데, 저희들은 예물을 준비하여 오기가 어려웠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서가 말했다. “사은의 표문(表文)을 보고싶은데, 지금 여기에 가져왔는가?“ 답변하기를 “표문은 이미 예부(禮部)에 올렸습니다.
초고는 하관(下館)에 남겨두었는데,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서가 물었다. “너희 행차는 다만 삼경의 수복 때문이고, 따로 다른 일은 없는가?“ 답변하기를 “오로지 삼경의 수복 때문에 왔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서가 말했다. “황상(皇上)께서 너희 나라가 충순(忠順)함을 본받는 것을 연민(憐愍)하여 특별히 천하

의 병사를 일으켜 흉적(兇賊)을 탕벌(蕩伐)하셨다.
이후에는 너희 나라가 잘못되고, 또 변란이 있더라도 결코 다시는 병마를 동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남겨놓은 병사가 얼마이던가? 너희 나라는 어떤 방략(方略)을 세워서 힘을 모아.....우환이 없도록 보존할 수 있겠는가?
지금 5천 병사를 남겨서, 너희 나라 병사 3만과 함께 협동하여 방수(防守)하려고 하는데,
3만의 군병을 조발(調發)할 수 있겠는가?"....(답왈)....."우리 나라는 거의 망하고 난 후인지라,
금일의 추호(秋毫)라도 남길 수 있었음은 황제의 힘 때문입니다. 감히 다시 사설(辭說)하지 못하지만.....만약 다만.....
.....한다면, 지켜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나라 인민(人民) 가운데 정장(丁壯).....노약(老弱)자까지도 한 나라의 힘에 다 탕진한지라, 조발한다면 3만의 숫자를 (채우게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 상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1만의 병마를 남겨둔다면 충분하겠는가?" 답변하기를 "만약 적들이 모두 소굴로 돌아간 것으로써 말씀드린다면.
1만 병마라도 오히려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노(倭奴)들이 거짓으로 돌아가서 만에 하나라도 다시 온다면, 1만으로는 당해내지 못 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우환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서가 또 물었다."동해군(東海君)이라 하는 자는 국왕의 몇 번째 아들인가?" 답변하기를 "왕자 가운데 본래 동해군은 없는데, 아마 임해군(臨海君)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그는 장자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서가 말했다. "그가 군마를 거느리고 천장(天將)과 협력하여 지켰다는데, 인심이 귀속(歸屬)되었는지 모르겠구나?" 답변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임해군은 적중(賊中)에 포로가 되었는데, 출환(出還)한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서가 말했다. "임해군이 과연 어지러움이 심하다는 세자의 이름 모(某)이던가?" 대답하기를 "세자는 곧 광해군(光海君)으로서 국왕의 제이자(第二子)입니다.
국왕께서는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진 사람을 세자로 세운 것입니다. 국왕께서 파월하여 초망(草莽)에 있을 때, 모든 일이 창황하여 미처 아뢰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석야(石爺)는 즉시 하리(下吏)에게 명하여 문서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관리가 앞에서 보고하기를
근래에 들으니, 은을 채취하는 곳에 연(鉛: 납)이 많고 은은 적다고 한다.
그 연으로 연환(鉛丸)을 제조할 수 있는가? 이 일들은 마땅히 너의 배신이 알 수 있을 것이니, 너는 그에게 물어오라." 곧 구남에게 회품(回稟)하도록 하였다.
대답하기를 "적이 퇴각하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 적들이 각처에 산포(散布)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재(所在) 지방에서 곳에 따라 남겨진 적들을 참획(斬獲)하였습니다.
지금은 적이 비록 경계를 넘더라도 각로(各路)의 군병들은 제거되어, 본처(本處)를 방비하는 외에 어찌 외군(外郡)에서 옮겨서 쓰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전라도 지방은 대개 50여 관(官)이 있습니다. 해상의 귀선(龜船)은 다소....경상좌도는 변란을 겪은 이래 물력(物力)이 탕갈(蕩竭)되어 남은 것이 없으나, 오직 경상우도와 전라좌우도에 약간 선척(船隻)이 있습니다.

수군절도사 이순신(李舜臣) 등이 수리 건조하여 쓰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선봉(船蓬)이고, 정수(矴手)와 타부(打夫)가 모두 80여 명인데, 그러나 전사(戰士)는 이 숫자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
우리 나라 사람은 항상 수병(水病)을 근심하여 바다를 가는 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를 조종하는 일은 반드시 어호(漁戶)의 민정(民丁)을 씁니다.
이런 이유로 병선의 갖춤은 비록 크게 이루지는 못했으나 근래에 또한 역량에 따라 갖추었습니다.
권율(權慄)은 일찍이 전라도관찰사로서 병사 수만을 거느리고 와서, 행주(幸州)에서 왜적을 크게 이겼습니다.....
.....도(道) 도원수(都元帥)의 임목(任目).....지금은 .....주차(駐箚)하고 있는 곳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철물(鐵物)에 있어서는 원래.....우리 나라에서 충분히 구용(句用)할 수 있고, 연(鉛) 또한 연환(鉛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서가 말했다. “철이 우수하다면 군기(軍器)를 타조(打造)하여 근심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서(上書)의 ‘국군(國君)이 실덕(失德)하지 않았다면 충신이 없다한 들 무엇이 해롭겠는가?’라는 대목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곧 말했다. “너희 나라에 대나무가 많다하니 .....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대답하기를 “대나무는 본래 양남(兩南)에서 생산되는데, 채취하여 써서 다 없어졌습니다.”
곧 이어서 구남에게 꿇어앉아 고하도록 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적들은 물러났으나 파종시기가 지난 후인지라,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천 리가 황폐하게 버려졌습니다.
비록 적병들이 이르지 않은 곳이라도 원근의 민서(民庶)들은 조발(調發)에 분주하여 농사지을 겨를이 없습니다.
약간의 곡물은 낱알까지 거두어서 천병(天兵)의 군량으로 썼습니다.
만약 가을과 겨울을 지나 명년에 이르면, ....계책이 없습니다.
만약 명년 봄과 여름에 조금이라도 파종을 한다면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니, 군량을 공급할 일을 거의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심할 바는 명년의 봄과 여름 동안입니다. 다만 농기(農器), 농우(農牛)와 종자가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상서가 말했다.
“지금 만약 개시(開市)f22h의 이익을 통하게 한다면, 평양(平壤), 개성(開城), 왕경(王京) 등지에서 모두 와서 무역하여 실어가게 될 것이다. 요동(遼東)은 ....(풍부하게 거두는 곳인데),
게다가 금년의 농사는 매우 풍년이므로 너희 나라가 .....한다면 명년의 봄과 여름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천병(天兵)은 먼 (이역에서) 그 의복을 풍족하게 입고 그 음식을 좋게 먹고자 하는데, 만약 좋지 않은 옷과 식사로 대우한다면 저들은 소요(搔擾)를 일으킬 것이다.
당금(當今)의 일은 가장 통시(通市)가 시급하다.
종자(種子)의 경우는 요동지방에는 본래 벼가 없는데 하물며 그 종자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곡물은 조급(調給)하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강론할 필요가 없다.
” 또 물었다. “너희 나라는 전(錢)을 사용하느냐?” 대답하기를 “본래 전천(錢泉)이 없습니다.”

“포(布)를 사용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노(倭奴)들이 약탈하여 갔기 때문에 포 역시 매우 적습니다.” 상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또한 여러 가지 물화(物貨)을 가지고 역량에 따라 무역하면 편할 것이다.” 또 물었다.
“군기(軍器)의 경우 철물(鐵物)로 제조할 수 있으니, 궁전(弓箭) 또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는가?” 대답하기를 “변란을 당한 이래로 군자(軍資) 궁시(弓矢) 등을 한 번에 다 써서 모두 창실(搶失)하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상년(上年)에는 노야(老爺)의 큰 은혜를 입어서 궁면각자(弓面角子)를 무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궁각(弓角), 우근(牛筋) 등의 물건을 무역하여 가져가려고 합니다.....
가격...또한 지금 머물러 둘 천병들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
지금 기계(器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나라에 정교한.....을 전하여 익히도록 하여.....
.....영원히 황은(皇恩)을 입어 끝까지 강역(彊域)을 보존하고자 하오니, 노야의 분부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상서가 말했다. “적을 막는 방비에 관해서는 이미 행문(行文)에다 분부하였다.
지금 1만 6천의 군마를 남겨두려고 하는데, 너희 나라가 군량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또한 너희 나라에 염소(焰焇)가 많이 있느냐?”
대답하기를 “천병을 궤향(餽餉)할 비용에 있어서 은전(銀錢)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양향(糧餉)은 감히 우리 나라의 힘을 다하여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소는 비록 있으나 평소 선공(善工)이 없어서 구워서 제조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 풍부하지 못하고 정호(精好)하지도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상서가 말했다. “이 전쟁의 수기(守機)에 대해서는 마땅히 내가 유정(劉綎)에게 이미 분부하였다.
유정은 훌륭한 장관부하(將官部下)로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많다.
금후 적을 막는 일은 모두 유장(劉將)의 지휘에 따라서 행하라.
산에서 벌목(伐木)하여 수전(水戰)의 기구를 마련하고, 복노(伏弩)를 많이 설치하여 요로(要路)를 끊고, 산로(山路)의 험조(險阻)한 곳에는
목책(木柵)을 첨조(添造)하여 수륙(水陸)을 방비할 형세를 이루고, 전수(戰守)할 기계를 모두 수리한다면 저 왜노들이 어떻게 날아올 수 있겠는가?
이밖에는 유정 소장(小將)이 오기를 기다려서 너희 등과 사기(事機)를 상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는 너희 나라도 또한 마땅히 자강(自强)할 수 있으리라.
나는 지금 병사들 남겨두는 일 등에 대하여 마음을 써야할 곳이 있어서 본부로 올라간다. 너는 배신과 말할 수 .....”
14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15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16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하정(下程)이 왔다. 면연(免宴)f23h을 듣고 .....받들어 올렸다.

17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제독(提督) 홍계..(洪啓..)이 하관(下館)으로 왔다. 방물(方物)을 들였다.
18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19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20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21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을 내려보내 왔다.
22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제독의 주사(主事)가 관으로 내려와서 통사 구남을 불러서 청하기를 “너희 국왕의 고명면복(誥命冕服) f24h이 적에게 탈취 당했다고 한다. 이는 곧 황조(皇朝)에서 마땅히 보급(補給)할 것이다.....
배신이 명일 당으로 오면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정(下程)이 왔다.
23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이씨(李氏)에게 명하여 흠사(欽賜)f25h에게 사은보단(謝恩報單)을 올리도록 하였다.
홍려시(鴻臚寺)에 양사상(兩使相)과 서장관이 예부(禮部)로 가서.....고명사(誥命事)로 인하여 문서를 올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에 앉지도 못하여 올리지 못하였다.
24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사은....예부로 갔으나.....
사원(査員)이 밖에서 오지 않아서 올릴 수 없었다.
25일 맑음.
이날 비로소 예부에 문서를 올렸다.
26일
옥화관에 머물다.
27일 맑음.
면연은(免宴銀)을 내려보내 주었다. 옥화관에 머물다.
28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사은하다.
29일 맑음
사은하다.
10월 초 1일 맑음.
조의(朝儀)에 참석하여 초력(初曆)을 받았다. 옥하관에 머물렀다.
초 2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초 3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병부상서가 구남을 불러서.....

초 4일 맑음.

관에 머물다. 일행은 병부에 가서 상서와 마주하여 대화하였다.

이전에 예부에 가서 올렸던 군자(軍資) 등의 일에 관하여 의론하자, 석야(石爺)가 듣고서 예부에서 정문(呈文)을 가져오도록 하여 다 보고 나서 구남에게 말했다.

“이 정문 속의 일은 바로 내가 심려(深慮)했던 것들이다. 정곤수(鄭崑壽)f26h가 은을 관리할 때 관급(關給)f27h한 은자(銀子)는 얼마인가?“ 대답하기를 “3천량입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이는 긴요한 일이 아니니, 내가 마땅히 주선하여 처리하겠다.“라고 하였다.

초 5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초 6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초 7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초 8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초 9일 맑음.

이날 상(賞)을 받았다.

초 10일 맑음.

이날 사은하다.

11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예부에서 병부에 이자(移咨)f28h하여 본국제본(本國題本)f29h의 일에 대해 ..... 조칙을 내려달라는 내청(內請)으로 인하여, 사행일행에게 조칙을 하사하여 달라고 청하였다.

지난 번 초 10일에 이미 본부에 올렸다고 한다.

이날 저녁 홍제독이 관으로 내려와서 서장관을 시켜 보기를 요청하였다.

곧 고명사(誥命事)로 인하여.....

조칙을 내려줄 것을 재삼 간곡히 제독에게 청하였다. .....

나야(羅爺)에게 말하였고... 또한 배신에게 병부상서에게 요청을 올리도록 하였다.

상세한 것은 별록(別錄)에 있다.

12일 맑음.

제독의 분부에 인하여 병부에 문서를 올렸다. 상세한 것은 별록에 있다.

13일 맑음.

옥화관에 머물다.

구남을 시켜 병부로 가서 석야의 분부를 듣고 오도록 하였다.....

이는 곧 송강 정문청공이 만력 계사년(1593년) 부경(赴京)했을 때의 일기이다.

아아! 임진년의 변란은 어찌 차마 말할 수 있으리요! 지금은 선생의 세대와의 거리가 2백여 년이다.

비록 평범한 서독이지만 나중에 이어받는 사람들에게는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욱 귀해진다.

하물며 환난 속에서의 기사(記事)가 역력하고, 게다가 선생의 죽음이 이 겨울에 있었으니 곧 절필과 같은 것임에랴!
간혹 인인(印人)f30h에 의해 제거(擠去)된 곳이 있어서, 잘 수호(修護)하지 못하여 손상되고 더럽혀진 곳이 있게 되었으니 한탄스럽다!
나는 일찍이 회옹(晦翁)f31h의 글을 읽다가 '유자징묵장기(劉子澄墨莊記)f32h'에 이르러 그것을 잃었는데 되돌아온 것이 몹시 신기하였다.
지금 이 첩을 보수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마침내 장황(粧黃)하여 되돌려놓는다.
무진(戊辰) 1748년f33h 중춘 하순에 씀 (黃龍 仲春 下浣書)

[각주]

1) 관외(關外) : 관(關)은 산해관(山海關)을 가리킨다. 중국 하북성(河北省) 임유현(臨榆縣)의 동문(東門)이다. 만리장성의 끝나는 곳에 있어 예부터 천하제일관(天下第一關)이라고 하였다.

2) 조패(早牌) : 아침 진시(辰時, 오전 7시-9시)에 관문(關門)을 통과하도록 허가하여 내어주는 패(牌)

3) 병부분사주사(兵部分司主事 : 산해관에 병부 분사가 있어서 그 관리를 가리킨다.

4) 통사(通事) : 사역원(司譯院) 소속의 통역관이다. 보통의 사행 기록은 정사(正使)나 서장관(書狀官) 이외에 여러 명의 통사(通事)들이 수행을 하게 된다.

5) 배신(陪臣) : 중신(重臣)이라는 말이다.

6) 沈遊擊(심유격) : 임진왜란에 참여한 명군의 장수이며 유격장(遊擊將)으로 참여하여 심유격이라고도 한다. 일본과의 강화를 성사시키려고 애를 섰다.

7) 파월(播越) : 거처하는 곳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임금이 도성을 떠나 피란한다는 파천(播遷)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8) 방료지사(放料之事) :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휼하는 일

9) 하정예물(下程禮物) : 외국의 사신에게 숙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일을 말한다.

10) 차부하인(差部下人) : 병부(兵部)의 하인이라는 뜻이다.

11) 난하(灤河) : 하북성에서 발원하여 발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을 말한다. 난수(灤水), 칠하(漆河)라고도 부르며, 동쪽 언덕에 고죽군(孤竹君) 묘가 있다.

12) 송경략(宋經略) : 명의 병부우시랑(兵部右侍郎)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병된 명군을 총 지휘하였던 송응창(宋應昌)을 말한다. 당시 그의 직명이 '경략방해비침군무(經略防海備侵軍務)였으므로 흔히 경략(經略)이라고 불렀다.

13) 유부총(劉副摠) : 명군의 장수 유정(劉綎)을 가리키는데, 유대도(劉大刀)라도 부른다. 조명연합군의 총수가 되어서는 일본군에게 뇌물을 받고, 진중에 여자들을 데리고 다녀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14) 이여백(李如栢) : 명군을 이끌었던 제독 아래 벼슬인 도독이다.

17) 성절사(聖節使) : 천자의 탄일(誕日)을 하례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신

18) 옥하관(玉河館) : 북경에 있는 관사로 사행일행이 머물던 곳이다. 옥하의 남쪽에 있어서, 이름을 옥하관이라고 붙였다. 會同館이라는 별칭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일찍이 금남 최부도 북경에 와서 이곳에 머물렀다.

19) 서반(序班) : 홍려시(鴻臚寺)의 한 벼슬이름이다.

20) 홍려시(鴻臚寺) : 궁정에서 예를 행할 때 찬도(贊導)와 상례(相禮) 등 의절(儀節)을 맡아보는 관청으로, 명대에는 사의서(司儀署)와 사빈서(司賓署)를 그 밑에 두어 주로 외국사신의 안내를 맡았다. 목소리가 커야 되므로 홍(鴻)이라는 말을, 전(傳)하는 직책이므로 로(臚)라는 말을 쓴 것인데, 보통 홍려시(鴻臚寺)라고 한다. 옥하관에서 걸어서 홍려시를 지나면 병부에 가게 된다.

21) 서생포(西生浦) : 경남 울산시에 있는 포구이다.

22) 개시(開市) : 다른 나라와 교역을 위하여 시장을 여는 것을 말한다

23) 면연(免宴) : 면신례(免新禮) 잔치를 말하는 것이다. 새로 들어온 관원이 음식을 내는 것을 말한다.

24) 고명면복(誥命冕服) : 고명(誥命)은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가리키는 말이고, 면복(冕服)은 임금의 정복으로 면류관과 곤룡포를 가리킨다.

25) 흠사(欽賜) : 황제가 보내는 사신을 흠사(欽賜)라고 한다.
26) 정곤수(鄭崑壽, 1538-1602) : 이황의 문인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우승지에 올라 선조를 의주에 호송하였다. 진주사(陳奏使)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병부상서 석성(石星)을 움직여 구원병을 파견케 하였다. 나중에는 사은사(謝恩使)로 명에 다녀오는 등 대명외교를 활발하게 하였다
27) 관급(關給) : 관(官)에서 군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8) 이자(移咨) : 자문(咨文, 중국과 왕복하는 공문서)을 보내거나 통보하는 것을 말함.
29) 본국제본(本國題本) : 공문(公文)을 말한다.
30) 인인(印人) :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란 말인 듯한데, 확실하지 않다.
31) 회옹(晦翁) : 송나라 주희(朱熹)의 호이다.
32) 유자징(劉子澄) : 송나라 사람 유청지(劉淸之)로 그의 자가 자징(子澄)이다. 주자에게 의리의 학을 말하였고, 문집이 있으며 농서(農書), 묵장기(墨莊記) 등 많은 글을 남겼다.
33) 무진(戊辰) 1748년 : 무진이 1748년인지, 아니면 1808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전자로 적어놓았다. 또한 장황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도 밝히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연행기와 관련이 있는 기록물인 『百世葆重』의 장황이 1811년 신미년 하백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후기가 있어서 혹시 서로 연관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